제주도 내 관광사업체
판매·홍보 지원!
제주여행 공공 플랫폼 탐나오 www.tamnao.com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420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1년 8월 2일 월요일(음력 6월 24일)

대권 도전 원희룡 지사직 사퇴

어제 도청서 기자회견갖고 도지사 사임 공식 선언
"임기 다 못해 도민께 죄송… 당내 대선 경선 집중"
제주도정 10개월 공백속 코로나19 확산 시국 '비상'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당내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 1일 도지사직 사퇴를 선언했다. 사퇴 선언은 1일 이뤄졌지만, 도의회 통지 절차가 남아 있어 원 지사가 공식적으로 도지사 직에서 물러나는 시점은 오는 12일 0시이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여러분과 약속했던 임기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도민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권 교체에 나서기 위해 도지사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어떠한 꾸짖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지난 2018년 지사 재선 도전을 선언하며 "도민만 바라보겠다"면서 대권 도전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원 지사는 이런 도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대권 도전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정권 교체를 위한 정치적 책임'을 들었다.

그는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사임을 결심할 때까지 많이 망설이며 고뇌의 시간을 보냈고, '이것이 최선일까'하고 수 없이 고민을 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고,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선 정권을 교체해야 하며 정권 교체만이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져야 한다는 정치적 책임을 느껴 이 일에 지금 나서고자 한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며 당내 경선을 치르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양심상 허용할 수 없고, 대선 경선에도 집중할 수 없어 지사직 사퇴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정을 책임있게 수행하는 것과 당내 경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양심과 공직 윤리상 양립할 수 없는 일"이라며 "또 정권교체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부어야하는 절박함도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의지를 강력 피력한 원 지사는 "제2공항을 비롯해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다"며 "제2공항은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2면에 계속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일 도청 4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사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약속했던 임기를 다하지 못해 도민께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 질병관리청 8~9월 백신 접종계획 공개

만 18~49세 8월부터 시작

접종 예약은 10부제 방식

이달부터 만 18~49세 연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접종 사전 예약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예약 10부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0일 '8~9월 예방접종 계획'을 공개했다.

만 18~49세 대상 백신 접종의 사전 예약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된다. 예약 방법은 '10부제' 방법으로, 접종 사전예약 대상자가 주민번호상 생년월일 끝자리와 동일한 예약일자에만 예약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7월 5일에 태어난 사람(주민번호 앞자리 930705)은 8월 15일에, 1991년 11월 27일에 태어난 사람(주민번호 앞자리 911127)은 8월 17일에 예약이 가능하다.

해당 날짜별 예약 대상자는 예약일인 당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며, 이후 8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도 추가 예약 및 예약 변경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연령대별' 추가 예약이 이뤄지며 8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모든 대상자'에 대한 추가예약과 변경이 가능하다. 이 기간(8월 22일~9월 17일)에는 10부제 예약 미참여자도 추가예약·변경이 허용된다.

만 18~49세 연령층 접종은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이들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통해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한다.

정부는 이번 3분기 동안 일반 국민 대상 대규모 접종이 이뤄지지만 방역수칙 이행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심장·간 등 장애인,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접종이 우선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8월 5일부터 예약해 8월 26일부터 접종한다.

아울러 만 18~49세 연령층 중 지자체 우선접종 대상자들에 대해선 8월 17일부터 9월 11일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접종이 이뤄진다. 사전 예약은 8월 3일부터 6일까지다. 강다혜기자

공원·녹지 조성 계획에 제주특성 담는다

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 마련"

제주의 자연·인문·역사·문화환경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내용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지표 등을 반영해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 기본계획에는 ▷공원서비스 소외지역과 바람길 분석을 통한 공원녹지 확충 방안 ▷청정 제주 미래상을 반영한 공원 조성 방안 ▷도시지역내 오름 공원화를 통한 공원 서비스율 향상 방안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공원 조성 방안 ▷도시녹화 방안 및 이미 지정된 공원에 대한 정비 계획 등이 담긴다.

제주도는 지난달 24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연데 이어 앞으로 주민공청회,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제주 드론 상용화 서비스 '시동'

도, 드론특구 11개 사업 중 4개 사업 구체화·운영

올 2월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된 제주도가 드론특구 11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구체화해 본격 운영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앞으로 드론특구 11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구체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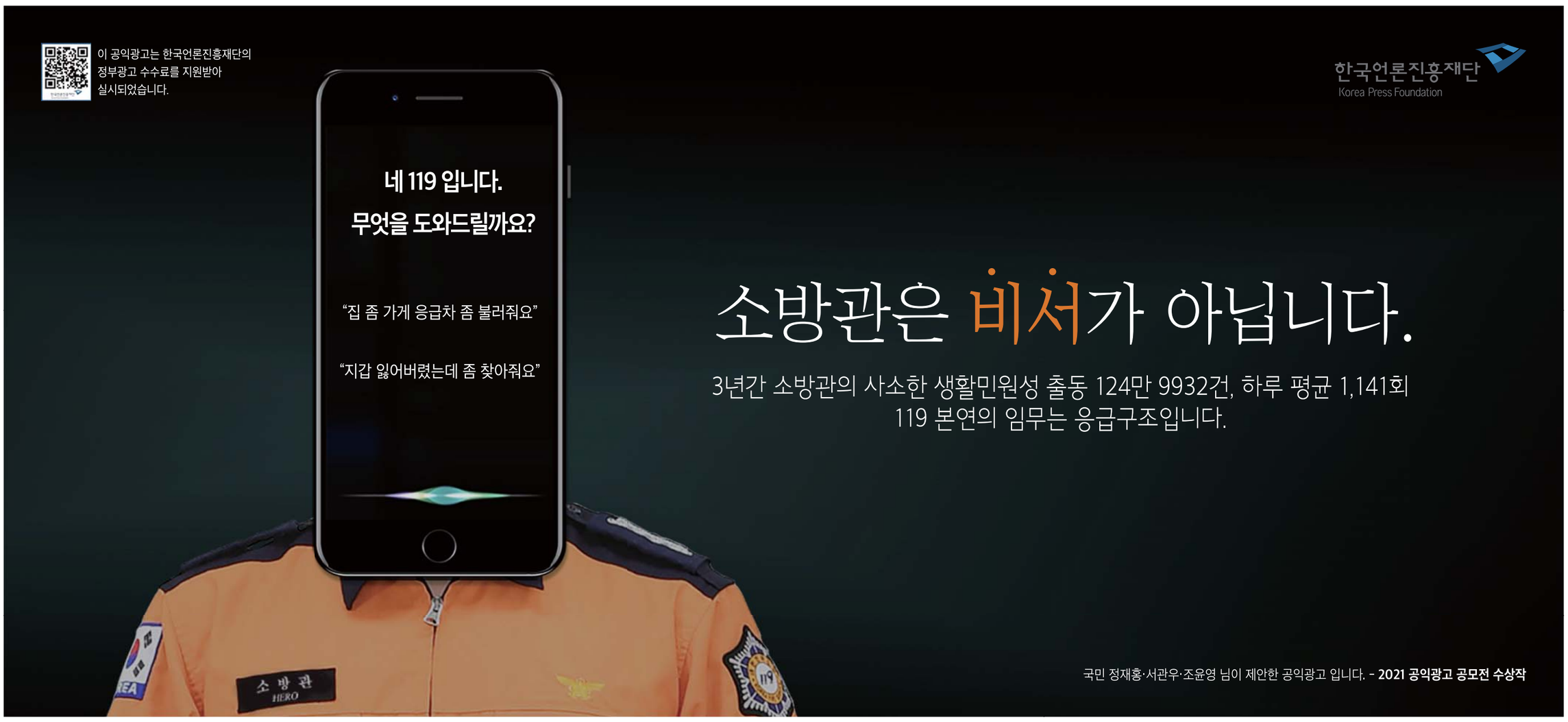
우선 운영을 위한 메인시스템으로 드론 다중관제 플랫폼을 구축해 이(異)기종 드론과 연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용·처리하고, 확대되는 드론서비스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한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협업해 소방드론을 활용한 긴급대응 솔루션도 구축한다. 아울러 90분 이상 비행 가능한 친환경 수소드론을 활용해 사건·사고 등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응급물품 배송 등도 추진한다.

스마트 드론, 드론스테이션과 호출앱을 바탕으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장기 체공이 가능한 태양광 AI드론을 활용해 제주의 해안선을 따라 모니터링하면서 연안 및 항만시설 관리에도 나선다.

도는 그 외 제주 드론특구 내 7개 사업은 한국가스공사 등 민·관 협업과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안사항 발생 및 신규 실증모델 발굴이 필요한 경우 드론 실증을 추가해 이번 사업에 반영키로 했다.

제주도는 8월부터 드론 기체 안전성 테스트, 안전 및 보안 관리 지침 및 계획, 주민홍보방안 마련 등을 진행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드론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 코로나19 1일 17시 기준 누적 확진 1763